

면담자의 태도 특성 및 그림 그리기 활동이 아동의 기억 정확성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기질적 특성을 중심으로

이 승 진[†]

건국대학교 상허교양대학

김 호 영

대검찰청 과학수사1과

본 연구는 면담자의 태도와 그림 그리기 활동이 아동의 기질적 특성에 따라 회상 보고 정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치과 진료가 예약되어 있는 만 5-10세 아동 100명을 대상으로 면담자의 태도(지지적 vs. 비지지적)와 그림 그리기 활동 여부에 따른 아동 기억의 정확성과 기질적 특성 간의 관계성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면담자의 지지적 태도는 개방형 질문에 대한 아동의 자발적 보고를 향상시켰다. 또한 구두 보고만 있었던 조건에 비해 그림 그리기 기회가 제공된 조건에서 아동의 자발적 보고가 많았다. 한편 아동의 연령을 고려한 경우 나이든 아동 보다 어린 아동의 기억이 면담자의 태도 특성과 그리기 활동 여부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의 기질적 특성을 고려한 경우 면담자의 지지적 태도와 그림 그리기 활동이 아동의 기억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특히 수줍음 경향성이 높은 아동에게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 아동이나 기질적으로 수줍음이 많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면담에서 면담자 태도의 중요성과 그리기 활동과 같은 부가적 도구의 활용 가치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아동 기억, 면담자 태도, 그리기 활동, 아동 기질, 부가적 면담 도구

[†] 교신저자 : 이승진, 건국대학교 상허교양대학, E-mail : sjmagiclife@gmail.com

서론

2015년 대검찰청 보고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 대상의 성폭력 범죄가 10년 간 3배 이상 증가하였고, 이 중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의 발생 건수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매해 평균 약 1067건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아동 범죄 사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사건의 특성상 물리적인 증거가 남지 않고 피해자가 가해자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피해 아동이 사건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해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신고와 증거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Malloy, Lamb, & Katz, 2011). 따라서 피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면담은 정확하고 세밀한 정보의 수집과 정황 파악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김태경, 이영호, 2010).

국외에서는 1980년대부터 아동 진술과 관련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고, 이는 바람직한 면담 방식을 구축하는 데 일조하였다(Poole & Dickinson, 2013). 우수한 라포 형성, 의사소통 규칙에 대한 연습, 서술적 보고 훈련의 필요성, 개방형 질문의 사용을 강조하는 NICHD(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 프로토콜과 같은 구조화된 면담은 아동 진술의 정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반복적으로 검증되어 왔다(Malloy et al., 2011).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 대화 상황과 달리 정교한 의사소통과(Lamb, La Rooy, Malloy, & Katz, 2011), 낯선 상황이 유발하는 부정적 정서의 조절까지(Pipe, Lamb, Orbach, & Cederborg, 2007) 요구하는 조사 면담에 반응하는 것은 아동의 입장에서 어려운 과제이다(Otgaar, Howe, Brackmann, & Smeets, 2016). 따라서 회상 보고에 필요한 인

지적 자원들을 아동이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서적으로 지지적인 환경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곽금주, 김연수, 이승진, 2015). 그런 측면에서 면담자의 지지적 태도나 그림 그리기와 같은 부가적 도구의 사용은 낮설고 생소한 면담 상황을 아동이 편안하게 인식하도록 하여 아동 친화적인 면담 환경을 조성하고 이는 곧 아동의 진술 신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Hershkowitz, 2011).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 면담은 모순되는 두 관점의 통합을 요구한다. 수사의 궁극적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사건과 관련된 세부 정보들을 아동으로부터 최대한 확보해야 함과 동시에 면담 과정이나 면담 종결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차적 트라우마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Katz, 2013). 따라서 불안이나 죄책감 등의 부정적 정서 유발 없이 아동이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면담 질문에 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면담의 환경적 요인 중에서도 면담자의 지지적 태도와 능동적 경청이 아동 기억의 정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oberts & Taylor, 1993). 면담자가 라포 형성 없이 사건에 대한 질문을 제공한 경우 아동은 면담에 응하는 것 자체를 매우 어려운 과제로 인식하였으며 이러한 인식이 사건과 관련된 정보의 보고에도 방해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Wattam(1992)은 면담자의 비지지적인 태도가 아동으로 하여금 면담 장소에 고립되어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제공하고 면담자로부터 이용당하고 있다는 부정적 인식을 유발한다고 보았다. 또한 Westcott과 Davies(1996)에서도 만 6-18세의 경우 면담자가 어려운 질문을 많이 하고 응답을 재촉하는 경우 아동은 자신이 하찮은 존재

인 것처럼 느끼거나 면담이 지루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Roberts와 Talyor(1993)의 연구에서는 개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경우 아동이 면담 과정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아동으로부터 최대한 풍부하고 신뢰로운 보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보호하는 면담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구체화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아동 면담은 정보 회상을 위한 인지적 능력과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적 능력을 일차적으로 요구한다(Lamb et al., 2011).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아동의 경우, 사회 정서적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아동의 정서 상태는 회상의 정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Pipe et al., 2007). 이러한 아동의 특성을 감안하여 아동의 부정적 정서를 조절해 주고 정확한 진술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는 부가적 도구의 유형과 그 필요성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부가적인 도구의 예로는 해부학적 인형, 인체 모형도(Human body drawing), 그림 그리기 등이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특히 아동 포르노와 관련된 사건에서 그림 그리기 활동이 면담의 도구로 빈번하게 사용된다(Katz, & Hamama, 2013). 그림 그리기 활동은 정서적으로 지지적인 면담 환경을 조성하여 낯선 환경에 대한 아동의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줌으로써 진술의 신빙성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Katz, Barnett, & Hershkowitz, 2014).

그림 그리기는 수백 년간 자기 표현의 도구로서 역할을 해왔다(Guttman & Regev, 2004). 생후 12개월쯤 되면 아동은 이미 종이와 크레용 사용에 노출되어 낙서를 시작하고, 자신의 감정, 생각을 표현하는 대체 언어로 그림 그

리기를 사용한다(Moschini, 2005). Malchiodi(1998)은 그림 그리기가 아동의 감정과 대인 관계 방식을 반영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아동이 언어적으로 표현 불가능한 것을 표현하도록 돕는다고 보았다. 유사한 맥락에서 기억 연구자들도 인지적 혹은 정서적인 이유로 언어적 표현에 한계가 있는 아동 면담 시 회상을 돕는 도구로써 그림 그리기의 효과를 살펴보았다(Katz & Hershkowitz, 2010). 연구 결과, 그림 그리기가 가능했던 그룹의 아동이 언어적 보고만이 가능했던 그룹보다 더 정확하고 완전한 보고를 하였다(Butler, Gross, & Hayne, 1995). 이후 후속 연구에서도 이상적인 면담 상황, 즉 개방형 질문이 제공되고 암시적인 질문이 없는 면담에서 그림 그리기 활동은 아동의 기억을 왜곡시키지 않고 정확한 회상 보고의 양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Salmon, Roncolato, & Gleitzman, 2003).

아동 면담에서 그림 그리기란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아동이 자신의 과거 경험을 회상하는 것이다. 이 때 면담자는 아동의 언어에 초점을 두며 그림의 내용은 해석에서 제외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 그림 그리기의 효과는 다양한 기제로 설명될 수 있다. 그 중 한 가지 설명은 그림 그리기가 아동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사건과 관련된 기억의 단서들을 생산하여 외부의 개입으로 인한 간섭 오류를 낮춘다는 것이다. 또한 그림 그리기는 면담 시 아동의 초점을 낯선 면담자로부터 그림 그리기로 옮겨 보다 자유롭고 편안하게 자신의 기억을 탐색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다(Brown, 2011). Cohen-Liebman(1999)은 그림 그리기를 사용하여 스트레스적 경험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은 아동에게 의사소통의 통제권을 준다고

보았다. Silver(2001)도 그림 그리기가 아동이 폭로하기 어려운 경험에 대해 말하는 것을 돕는 신뢰로운 도구이며, 아동이 스스로 회상 단서를 만들고 이를 토대로 기억을 조직화하여 보다 쉽고 편안하게 자신의 경험을 타인에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을 돕는다고 보았다. 실제 피해 아동을 대상으로 그림 그리기의 효과를 살펴본 연구도 있다(Katz & Hershkowitz, 2010). 이 연구에서는 4-14세의 (성)학대 피해 아동 125명을 대상으로 그림 그리기 유무를 조작하고 개방형 질문의 면담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그림 그리기 집단의 아동이 비교 집단의 아동에 비해 수사 사건의 정황 파악에 도움이 되는 인물, 행동, 시간, 장소 등에 관한 세부 정보를 더 많이 보고하였다. 또한 아동의 성별, 사건의 유형, 피해 시점으로부터 면담까지 지연된 시간과 무관하게 그림 그리기 활동이 정확한 진술의 양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림 그리기는 개방형 질문과 함께 사용되었을 때 아동으로부터 더욱 풍부한 진술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그림 그리기가 개방형 질문과 함께 사용되었을 때 아동은 오류 없이 정확히 보고한 양이 두 배(Weinle, 2002; Wesson & Salmon, 2001), 혹은 세 배까지도 증가하였다(Drucker et al. 1997).

그러나 그림 그리기의 사용이 아동의 회상 보고 양의 증가와 더불어 오류도 상승시킨다는 연구들도 존재한다. 예컨대, Davison과 Thomas(2001)의 연구에서는 그림 그리기가 아동의 자발적 회상에는 도움이 되지만 특정 사물의 이름이나 단어를 회상해 내는 방법으로 써는 부적절하다고 보았다. 이는 무엇이 사실이고 거짓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면담자가 아동에게 그림을 그리도록 안내함으로

써 아동은 거짓 정보를 사실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Strange, Garry와 Sutherland(2003)는 아동에게 거짓 사건을 그리도록 하였을 때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 때에 비해 그 사건을 실제 사건으로 잘못 보고하는 비율이 높아짐을 보여주었다. Otgaar 등(2016)의 연구에서도 복잡한 사건에 대한 비디오를 아동에게 보여주고 그 상황을 그림으로 그리도록 했을 때 언어적 보고만 했을 때보다 보고의 양은 증가하였지만 실제 발생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정보까지 추가하는 오류가 발생해 전반적으로는 그림 그리기가 회상 보고의 정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보았다. 한편 Bruck, Melnyk 과 Ceci(2000)는 학령전기 아동들에게(3-6세) 마술 공연을 보여주고 그에 대한 사실과 거짓 정보들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후 아동들에게 직접 그림을 그리거나 언어로 보고하도록 하였는데, 그림 그리기로 보고한 아동이 언어적 보고만 한 아동보다 사건 관련 정보들을 더 잘 기억하기도 하지만 실제 일어난 사건과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구분하는 능력이 훼손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림 그리기가 오정보 생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 중 일부는 그림 그리기 과정이 면담 도중이 아닌 면담 전에 연습 과제처럼 주어져 절차적인 부분에서 기존의 그림 그리기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들과 차이가 있고 보고 대상이 마술 공연과 같은 것으로 부정적 정서가 실제 유발되는 사건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스트레스가 유발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여 면담 과정 중 그리기 활동이 아동의 회상 보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그림 그리기의 효과가 아동의 출처 감찰 능력이나 표상 능력과 같은 아동의 개인

차에 따라 다르다는 연구도 있다(Bruck et al., 2000; Salmon, 2001). 아동의 출처 감찰 능력이 우수하거나 아동이 그린 그림이 얼마나 실재를 잘 묘사하고 있는 지에 대한 판단이 우수한 아동의 경우 그림 그리기로부터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출처 감찰이나 묘사 능력이 불안정한 만 3-5세 아동의 경우 그리기의 긍정적 효과는 적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아동의 인지적 능력 이외에도 아동의 기질적 특성에 따라 그림 그리기의 효과는 상이할 수 있다. 아동의 기질적 특성 중에서도 수줍음 정도의 개인차는 사회 정서적 맥락의 영향이 큰 조사 면담에서 라포 형성, 주의 집중, 보조 도구 활용 등을 효과적으로 구성하는 데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질적 특성으로 인해 기억 회상 시 진술을 꺼려하거나 어려워하는 아동에게서 면담자의 태도나 그림 그리기 활동의 효과를 스트레스적 사건을 이용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면담자의 지지적 태도와 그림 그리기 활동은 아동의 자발적 보고와 면담자의 암시적 질문에 대한 저항 정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면담자의 지지적 태도와 그림 그리기 활동이 아동 기억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나이든 아동보다 어린 아동에게 클 것이다.

셋째, 면담자의 지지적 태도와 그림 그리기 활동은 아동 기억에 미치는 영향은 아동의 기질적 특성, 특히 아동의 수줍음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방법

참여자

서울에 소재한 소아 치과에 일반 진료가 예약된 100명의 만 5-10세의 아동들(평균 = 92.25개월, 표준편차 = 13.78, 범위 = 72-130개월, 남아: 52명, 여아: 48명)이 참여하였다. 참여 아동이 받은 진료는 총치 34명, 발치 30명, 실란트 36명이었다. 치과에 아동을 동반한 주양육자(어머니: 84명, 아버지: 11명, 할머니: 4명, 할아버지: 1명)의 학력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고졸(12.9%), 대졸(51.8%), 대졸이상(9.4%), 무응답(25.9%)으로 나타나 평균 대졸 이상의 교육 수준을 지닌 부모로 평가되었다.

연구 도구 및 절차

실험자가 직접 부모와 아동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부모와 아동의 자발적인 서면 및 구두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연구를 진행하였다. 아동이 진료를 받는 동안 부모는 아동의 이름, 성별, 연령, 과거 치과 진료의 경험(횟수, 진료 시 통증의 정도, 진료 유형, 진료 장소) 등에 대한 정보에 답하는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아동은 평균 22분($M = 22.15$ 분, $SD = 3.15$, 최소: 5분, 최대: 40분)에 걸친 진료 받고 10여분 정도 휴식을 취한 후 기억 면담을 받았다.

기억 면담

모든 면담은 NICHD 프로토콜(Lamb et al., 2008, 2011)에 따라 진행되었다. 우선 면담자 소개를 시작으로 기본적인 의사소통 규칙(예: 진실 말하기, 면담자가 잘못 알고 있는 경우

수정해 주기,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도입 단계를 거쳤다.

그림 그리기 집단의 경우 본격적인 면담 시작 전 그리기 도구(스케치북, 연필, 지우개)가 주어졌다. 개방형 질문이 제공되기 전에 면담자는 아동에게 “진료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그림으로 그려줄 수 있겠니. 그 후에 이야기를 계속할게”라는 지시를 전달하였다. 10분가량의 시간을 주어 진료 경험에 대한 그림을 그리도록 하였고, 이러한 과정 중 면담자는 ‘음’이나 아동의 말을 반복하는 것(아~ 그랬어?) 이외에는 언어적인 촉진을 제한하였다. 아동이 그림을 완성한 후 면담자는 “너가 그린 그림에 대해 말해줄 수 있겠니”라는 개방형 질문을 제공하였다. 이후 프로토콜 절차에 따라 반개방형 질문(무엇을, 어떻게, 형태의 질문)과 네/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선택형 질문을 제공하였다(부록 참조). 면담자는 아동의 그림에 대해서는 어떠한 주관적인 해석도 하지 않으며 오직 아동이 언어적으로 보고한 내용만을 평가하였다. 또한 면담 도입부에 아동이 이미 보고한 내용에 관한 것이 재질문 될 수 있음에 대하여 아동에게 알려주었다. 아동의 응답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아동에게 동일한 질문을 제공하기 위함이나 이전 응답을 변경할 필요가 없음을 알려주었다.

그리기 활동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동일한 면담 방식으로 진행되나 면담자와 언어적 상호작용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전체 면담 시간이 동일하도록 하기 위해 그리기 활동이 제공되지 않는 집단에서는 개방형 질문에 아동이 답하는 시간을 충분히 더 제공하였다. 그러나 아동이 개방형 질문에 자발적으로 반응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기 활동 여

부에 따라 전체 면담 시간은 차이가 발생하였다. 그리기 활동 제공 집단의 전체 면담 시간은 평균 21분($M = 21.76$ 분, $SD = 1.62$, 최소: 19분, 최대: 25분) 이고 그리기 활동이 제공되지 않은 집단의 전체 면담 시간은 평균 18분($M = 20.58$ 분, $SD = 2.12$, 최소: 17분, 최대: 25분) 이었다.

최종적으로 기억 면담을 종료하기 전 면담자는 아동이 정서적으로 편안한 상태로 돌아오는 데 도움이 되도록 대화의 내용을 중립적인 주제로 전환하여 아동과 자유롭게 대화한 뒤 면담을 종료하였다(예: “이제 병원을 나서면 엄마와 무엇을 할거니?”). 이 부분은 최종 면담 시간에 포함되지 않았다.

면담자의 태도

본 연구에서 면담자의 태도 조작은 NICHD 프로토콜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적용되었다. 면담자의 태도는 면담자의 복장, 의사소통 방식(언어적 및 비언어적 표현), 아동의 이름을 불러주는 유무, 아동 응답에 대한 고개 끄덕임 유무, 아동과 면담자의 신체적 거리에 따라 조작이 이루어졌다(Davis & Bottoms 2002).

지시적 면담에서 면담자는 분홍색 옷을 입고 아동이 앉은 오른쪽 옆 자리에 앉아 아동과 면담자가 마주보지 않고 가까이 자리해 아동이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아동의 언어적 반응에 고개를 끄덕이고 지속적으로 눈맞춤과 미소를 제공하였으며 아동의 이름을 자주 불러 주었다(예; 00이는 그랬구나, 00이는 그런 경험을 했구나 등). 반면, 비지시적인 면담에서 면담자는 검은색 정장 차림에 경직된 태도로 면담 진행을 위한 필수 내용을 전달하는 것 이외에는 아동과 불필요한 대화는 하지 않고 아동을 향한 언어적, 비

표 1. 연령과 그리기 활동 여부 및 면담자의 태도에 따른 아동 참여자 수

연령	실험 조건	아동 수(N)	합계(N)
어린 아동 (만 5-7세)	그리기활동 O / 지지적	12	50
	그리기활동 O / 비지지적	13	
	그리기활동 X / 지지적	12	
	그리기활동 X / 비지지적	13	
나이든 아동 (만 8-10세)	그리기활동 O / 지지적	13	50
	그리기활동 O / 비지지적	12	
	그리기활동 X / 지지적	13	
	그리기활동 X / 비지지적	12	
합계		100	100

언어적 표현을 최소화하고 단순화 하였다. 책을 앞에 두고 아동과 마주 보고 앉았으며 아동의 반응에 고개 끄덕임을 피드백으로 제공하지 않았으며 아동과의 눈맞춤과 미소 제공을 최소화하였다.

면담자 태도에 대한 아동의 인식은 면담 종결 후 또 다른 실험자가 아동에게 질문하여 측정하였다. 아동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의 한계상 질문은 아주 간단한 문항으로 제시하였다(부록 참조). 이 때 실험자는 아동에게 이전 면담자가 아동의 답변을 알 수 없음을 명확히 전달하였고 다음 면담에 응하는 친구를 위해 정직하게 응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모든 질문은 5점 척도이며 아동 응답의 평균이 면담자의 태도 점수로 산출되었다. 아동들이 글 보다 그림을 더 선호하는 것을 고려하여 모든 아동들에게 온도계 그림을 보여주며 자신이 면담 시 느낀 편안함 정도와 선생님의 반응(미소, 고개 끄덕임)에 해당되는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도록 하였다(visual analogue scale; Marsac, 2008). 면담을 직접 시행한 면담자도 아동의 응답 망설임 혹은 적극성 정도

등 면담자가 관찰한 아동의 반응에 비추어 면담자에 대한 아동의 인식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면담자 태도 조작성이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한 결과, 연령에 무관하게 지지적 태도의 면담을 받은 아동이 비지지적 태도의 면담을 받은 아동보다 면담자를 우호적으로 평가하였다. 지지적 면담; $M(SD) = 4.44(.54)$, 비지지적 면담; $M(SD) = 2.88(.10)$, $T(1, 98) = 143.33$, $p < .01$.

아동의 기질

아동의 기질은 Putnam과 Rothbart(2006)의 아동 행동 설문지의 축약본(Childhood Behavior Questionnaire-short version, 총 36문항)을 통해 평가되었다. 이 설문지는 만 3-12세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평소 아동의 행동적 특성에 대한 물음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부터 '항상 그렇다'에 이르기까지 7점 척도를 이용해 응답하고, 아동과 무관한 내용의 질문에는 '해당되지 않음'에 체크할 수 있다. 이 설문지는 아동의 특성을 다방면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활동 수준, 높

은 강도의 즐거움 추구 경향성, 충동, 수줍음, 화, 불안, 두려움, 슬픔, 안정성, 주의집중, 억제적 통제, 낮은 강도의 즐거움 추구 경향성, 지각적 민감성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도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수줍음' 문항은 새로움 혹은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아동의 접근 경향성을 살펴보는 것으로, '우리 아이는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주변 사람에게도 때때로 부끄러워하는 태도를 보인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과 편안하게 지낸다(역코딩)', '새로운 사람들 주변에서 매우 수줍게 행동한다' 이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3문항의 평균을 아동의 수줍음 점수로 산출하였고 평균 점수의 범위는 1~7점이다.

참여 아동의 연령과 그리기 활동 여부 및 면담자의 태도에 따른 각 그룹의 참여자 수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코딩

면담의 전 단계를 전사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질문 유형에 따른 아동의 중 정확하게 반응한 수만을 수량화 하였다. 이는 Yuille와 Curshall(1986, 1989)이 최초로 개발하고 Lamb 등(1996)이 정교화한 코딩 방식이다. 회상된 정보의 수는 처음 언급되고 그 응답이 정확한 경우에만 처리되었고 아동이 반복하여 언급한 항목에 대해서는 중복 계산되지 않았다. 아동이 정확하게 응답한 항목 중에서 개방형 질문(1문항, 예: "치과 진료에 대해 기억나는 것을 모두 말해줘")에 반응한 정확한 정보와 반개방형 질문(15문항)에 반응한 정확한 정보는 '자유 회상' 으로 코딩되었다. 한편, 진료 시 발생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네/ 아니오 선택형 질문 즉, 암시적 정보적 질문(10문항)

에 아동이 '네'라고 잘못 응답한 경우 '오정보'로 코딩되었다. 진료 시 발생한 사항에 대한 네/아니오 선택형 질문 즉 암시적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질문에 대한 아동의 정확한 반응은 본 연구에서는 주요 변수로 고려되지 않았다. 따라서 최종 분석에 사용된 종속 변수는 자유 회상과 오정보이다. 자유 회상 점수는 개방형 질문과 반개방형 질문에 정확하게 응답한 수에서 해당 질문 유형의 전체 질문 수로 나눈 평균값이다. 오정보는 아동이 '네'라고 잘못 응답한 수에서 해당 질문의 전체 질문 수로 나눈 평균값이다. 자유 회상 점수가 높다는 것은 아동이 면담자의 개방형 질문과 반개방형 질문에 정확하게 보고한 정보가 많다는 것이고 오정보 점수가 높다는 것은 암시적 질문에 '네'라고 잘못 응답한 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유 회상 점수는 높을수록 오정보 점수는 낮을수록 아동의 기억 정확성이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자료 처리 방식은 유사한 맥락에서 아동의 회상 보고 정확성을 살펴본 Baker-Ward 등(2015)의 연구 방법을 따랐다.

아동의 면담 자료는 본 실험에 참여하지 않은 두 명의 연구원이 전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코딩을 진행하였고 평정자 간의 내적 일치도는 자유 회상 .90, 오정보 .95($ps < .05$)로 확보되었다.

분석방법

수집된 모든 자료는 SPSS 22.0 통계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참여 아동의 연령, 성별, 부모 관계 등의 변인들과 관련하여 빈도 분석을 사용하여 아동 기억 정확성에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아동의 성

별, 부모의 학력 등은 아동 기억 정확성(자유 회상과 오정보 반응)과 유의한 관계성을 보이지 않아 이후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그리기 활동 여부와 면담자의 태도 영향이 아동 기억 정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아동의 수줍음의 정도에 따라 그리기 활동 여부와 면담자의 태도가 아동 기억 정확성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지도 변량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결과 및 해석

그리기 활동 여부와 면담자의 태도 영향이 아동 기억 정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동의 연령(나이 든 아동 vs. 어린 아동), 그리기 활동 여부, 면담자 태도 조작에 따른 3원 상호 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자유 회상, $F(2, 92) = .15$, 오정보 반응, $F(2, 92) = .20$, $ps > .05$. 그러나 각 요인의 주효과는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아동 기억에 대한 연령의 주효과를 살펴본 결과, 나이 든 아동의 자유 회상이 어린 아동의 자유 회상보다 높았다, 만 8-10세, $M(SD) = .55(.28)$; 만 5-7세, $M(SD) = .28(.15)$, $F(1, 98) = 79.33$, $p < .05$. 참여 아동 만 5-10세 중 각 연령에 해당하는 아동의 수가 균등하지 못하고 만 6세 아동의 수와 만 9세 아동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표집되어 만 5세와 7세를 만 6세 아동과 합하여 어린 아동으로, 만 8, 10세를 만 9세 아동과 합하여 나이든 아동으로 분류하였다. 한편, 암시적 질문에 대한 아동의 응답, 즉 오정보 반응은 어린 아동이 나이 든 아동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만 8-10세, $M(SD)$

$= .08(1.20)$; 만 5-7세 $M(SD) = .14(1.50)$, $F(1, 98) = 15.67$, $p < .05$.

아동 기억에 대한 면담자 태도의 주효과를 살펴본 결과, 면담자의 지지를 제공받은 아동의 자유 회상이 비지지적 조건 아동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지적 조건, $M(SD) = .49(.20)$; 비지지적 조건: $M(SD) = .33(.18)$, $F(1, 98) = 15.50$, $p < .01$. 암시적 질문에 대한 아동의 오정보 반응은 지지적 조건보다 비지지적 조건에서 높게 나타났다, 지지적 조건, $M(SD) = .08(.10)$; 비지지적 조건, $M(SD) = .14(.05)$, $F(1, 98) = 16.51$, $p < .01$. 이는 면담자 태도가 지지적일수록 아동의 회상 보고 정확성이 증가한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Davis & Bottoms, 2002).

아동 기억에 대한 그리기 활동의 주효과를 살펴본 결과, 그리기 활동이 제공된 집단이 그리기 활동이 제공되지 않은 집단보다 자유 회상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기 활동 유, $M(SD) = .49(.19)$; 그리기 활동 무, $M(SD) = .33(.20)$, $F(1, 98) = 79.33$, $p < .01$. 또한 그리기 활동이 제공된 집단이 그리기 활동이 제공되지 않은 집단보다 낮은 오반응을 보였다, 그리기 활동 유, $M(SD) = .10(.15)$; 그리기 활동 무, $M(SD) = .13(.12)$, $F(1, 98) = 5.73$, $p < .01$. 이는 선행 연구들과 일관되게 스트레스적 사건 회상 시 그리기 활동이 포함된 면담을 하였던 아동이 그리기 활동 없이 구두 보고만 하였던 아동보다 더 정확한 회상 보고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Katz et al., 2014). 아동의 그리기 활동 여부와 면담자의 태도에 따른 연령별 아동 기억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면담자의 지지적 태도와 그림 그리기 활동이 아동 기억 정확성에 미치는 긍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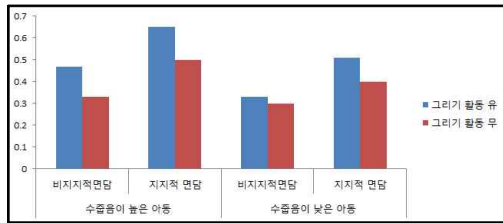


그림 1. 수줍음 경향과 면담자 태도 및 그리기 활동 유무에 따른 자유 회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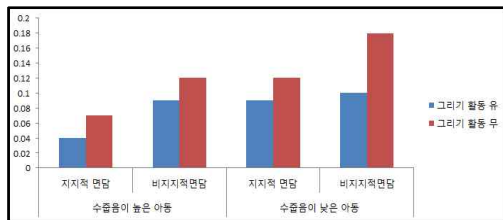


그림 2. 수줍음 경향과 면담자 태도 및 그리기 활동 유무에 따른 오정보

적인 영향을 검증하였다. 그러나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면담자의 지지적 태도와 그리기 활동으로부터 편안함을 느끼는 정도는 아동마다 다양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아동의 기질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선 아동의 기질적 특성과 아동 기억 간의 관계성을 탐색해 보는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아동의 기질적 요인 중 낮은 사람과의 대화를 회피하거나 수줍어하는 경향이 높은 아동일수록 회상 보고의 정확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수줍음 정도와 아동의 자유 회상 점수 간의 상관 계수, $r = -.37, p < .01$; 수줍음 정도와 아동의 오정보 반응 간의 상관 계수 $r = .47, p < .01$).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의 수줍음에 대한 중앙치 점수를 살펴보고 그 기준으로 {4.35, $M(SD) = 4.17$ (1.11), range: 1-7} 수줍음이 상대적으로 높은 아동과 낮은 아동으로 구분하였다.

자유 회상의 경우, 면담자의 태도와 그리기

표 2. 그리기 활동 및 면담자의 태도 여부에 따른 아동 기억 정확성의 연령별 평균과 표준편차

연령	면담자의 태도	자유 회상			
		오정보			
		그리기 활동 여부			
		O	X	O	X
		<i>M(SD)</i>			
만 5-7세	지지적 면담	.45(.09)	.30(.16)	.08(.03)	.12(.08)
	비지지적 면담	.24(.06)	.10(.09)	.16(.10)	.20(.05)
	합계	.35(.12)	.20(.13)	.12(.12)	.16(.10)
만 8-10세	지지적 면담	.71(.23)	.50(.18)	.04(.05)	.08(.05)
	비지지적 면담	.55(.22)	.41(.10)	.09(.07)	.10(.05)
	합계	.63(.25)	.46(.14)	.07(.09)	.09(.06)
총합	지지적 면담	.58(.16)	.40(.13)	.06(.08)	.10(.05)
	비지지적 면담	.40(.14)	.26(.18)	.13(.12)	.15(.10)
	합계	.49(.19)	.33(.20)	.10(.15)	.13(.12)

활동 여부, 아동의 수줍음 정도를 포함한 3원 변량 분석에서 상호 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수줍음이 높은 아동의 경우 면담자의 태도에 따른 자유 회상의 차이가 유의하였고, $F(1, 49) = 11.99, p < .01, \eta = .45$, 그리기 활동 여부에 따른 자유 회상의 차이도 유의하였다 $F(1, 49) = 20.04, p < .01, \eta = .54$. 즉 수줍음이 높은 아동의 경우 면담자의 태도와 그리기 활동 모두가 아동의 자발적 보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줍음이 낮은 아동의 경우 그리기 활동 여부에 따른 자유 회상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고, $F(1, 49) = 1.85, p > .05, \eta = .19$, 면담자의 태도에 따른 자유 회상의 차이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F(1, 49) = 8.03, p < .01, \eta = .38$. 즉 수줍음이 높은 아동이 낮은 아동보다 자발적 보고에 있어 면담자의 태도나 부가적 도구의 활용과 같은 면담의 특성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아동의 오정보 반응의 경우 면담자의 태도와 그리기 활동 여부, 아동의 수줍음 정도를 포함한 3원 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상호 작용이 나타났다, $F(1, 92) = 7.48, p < .05$. 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수줍음의 정도에 따라 그리기 활동 여부와 면담자 태도의 분산 분석을 각각 실시하여 상호 작용 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수줍음이 낮은 아동의 경우 면담자의 태도와 그리기 활동의 상호 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수줍음이 높은 아동에게는 그리기 활동 여부와 면담자 태도의 2원 상호 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F(1, 46) = 6.07, p < .05$. 수줍음이 높은 아동의 경우 면담자 태도가 지지적인 조건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오정보에 대한 저항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F(1, 49) = 5.08, p < .05, \eta = .31$, 그러나 그리기 활동 여부에 따

표 3. 그리기 활동 여부, 면담자 태도와 아동의 수줍음 정도에 따른 아동 기억의 연령별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기 활동 여부	면담자의 태도	자유회상		오정보	
		수줍음이 낮은 아동 (n=50)	수줍음이 높은 아동 (n=50)	수줍음이 낮은 아동 (n=50)	수줍음이 높은 아동 (n=50)
M(SD)					
그리기 활동 있음	지지적	0.65(.20)	0.51(.15)	0.04(.03)	0.09(.10)
	비지지적	0.47(.24)	0.33(.20)	0.09(.03)	0.12(.40)
	합계	0.56(.25)	0.42(.22)	0.07(.05)	0.11(.80)
그리기 활동 없음	지지적	0.50(.16)	0.40(.23)	0.07(.04)	0.10(.04)
	비지지적	0.33(.15)	0.30(.22)	0.12(.05)	0.18(.05)
	합계	0.42(.18)	0.35(.25)	0.10(.05)	0.14(.10)
총합	지지적	0.58(.24)	0.46(.25)	0.06(.05)	0.10(.15)
	비지지적	0.40(.33)	0.32(.30)	0.11(.06)	0.15(.20)
	합계	0.49(.50)	0.39(.56)	0.09(.08)	0.13(.22)

른 오정보의 차이는 없었다, $F(1, 49) = 2.05, p > .05, \eta = .20$. 이는 그리기 활동이 오정보를 생산할 수 있다는 선행 연구들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결과로 모든 아동에게 그리기 활동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기 보다는 수줍음이 높은 아동에게 그와 같은 위험이 더 큰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리기 활동 여부, 면담자의 지지 여부와 아동의 수줍음의 정도에 따른 아동 기억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3에 제시하였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동으로 하여금 구체적이고 신뢰로운 진술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비롯되었다. 스트레스가 유발되는 치과 진료가 예정된 만 5-10세 아동 100여명을 대상으로 면담의 부가적 도구로서 그림 그리기 활동과 면담자의 지지적 태도가 아동의 자발적 보고와 오정보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그림 그리기 활동과 면담자의 지지적 태도가 아동 기억에 미치는 영향이 아동의 수줍음 정도와도 유의한 관계가 있는 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그림 그리기 활동과 면담자의 지지적 태도와 같은 면담의 구조적 특성이 아동 기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동의 수줍음 정도에 따른 차이도 발견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중심으로 아동의 자발적 보고를 최대화하고 암시적 정보에 대한 오반응을 최소화해야 하는 조사 면담 맥락에서 면담의 구조적 특성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자 하였다.

우선 본 연구는 면담의 환경이 아동에게 긍

정적으로 인식되는 경우 아동의 자발적 진술이 향상된다는 선행 연구를 지지하였다(Davis & Bottoms, 2002). 특히 수줍음이 많은 아동의 경우 암시적 질문에 대한 저항에 있어 면담자의 지지적 태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줍음이 낮은 아동과 달리 수줍음이 높은 아동의 경우 면담자가 지지적인 태도로 의사소통 할 때에 암시적 정보에 잘 저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담자의 지지적 태도가 아동의 인지적 과제 수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많은 연구에서 밝혀져 왔다(Hershkowitz, 2011). 예를 들어 지지적인 면담 환경은 아동의 기억 정확성을 향상시키며(Greenstock & Pipe, 1997), 암시적 반응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Cornah & Memon, 1996). Goodman 등(1991)은 미취학 아동의 경우 지지적인 면담 시 자발적 보고의 양과 정확성이 증가하는 것을 증명하였으며(Goodman et al., 1991), 이러한 경향성은 실제 학대 및 성폭행 사건에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즉, (성) 학대 수사와 관련된 현장 자료 조사에서도 면담자의 지지적 태도가 제공될수록 아동으로부터 사건 재구성에 도움이 되는 세부 정보의 회상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ershkowitz, 2011). 이처럼 국외에서 이루어진 대부분의 연구들이 면담자의 지지적 태도가 아동의 기억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는 실제 피해 아동을 대상으로 하지는 못했지만 스트레스가 유발되는 사건을 통해 면담자의 지지적 태도가 아동 기억의 정확성에 미치는 영향을 반복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과 유사한 연령차도 검증되었다(Salmon, Bidrose, & Pipe, 1995). 특히 어린 아동의 경우 나이든 아동과

달리 면담자의 지지적 태도와 그림 그리기 활동이 개방형 질문에 대한 아동의 자발적 반응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어린 아동일수록 스트레스적 사건 경험 시 부정적 정서를 크게 경험할 가능성과 면담자(성인)와의 의사소통 시 면담자의 권위에 취약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낮은 면담자가 제공하는 정서적 지지의 효과는 나이가 든 아동보다 클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는 연령과 무관하게 그림 그리기 활동이 스트레스적 사건에 대한 아동의 기억 정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그림 그리기의 긍정적 효과는 다음과 같이 이해해 볼 수 있다. 아동은 그림을 그리며 자신의 기억을 재검토하고 회상에 필요한 단서를 찾고 그 단서들을 토대로 관련 정황 및 당시의 심리 상태를 보다 수월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즉 그림 그리기는 아동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회상 단서를 만들어 내는 도구로서 작용할 수 있다(Hamama & Ronen, 2009). 어린 아동이 나이가 든 아동보다 회상 보고의 정확성이 낮은 이유는 어린 아동은 회상 과정에서 구체적 질문이나 사건과 관련된 사진 등 인출 단서가 부재할 시 정보 인출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Gross & Hayne, 1998). 이러한 어린 아동의 인지적 한계를 고려할 때 회상 단계에서의 그림 그리기는 외부로부터의 개입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아동이 자발적으로 사건에 대한 절차적 기억을 활성화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Green, 2003). 요약하면 면담 시 그림 그리기 활동은 아동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인출 단서를 유발하는 것을 돕고 산발적으로 기억나는 정보들을 조직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도와 정확한 진술에 도움을 준다고 볼 수 있다(Brown, 2011). 그

러나 본 연구진은 이와 같은 인지적 측면에 초점을 둔 설명보다도 정서적 측면에서 그림 그리기 활동이 갖는 가치에 중점을 두고자 하였다. 실제 조사 면담에서 아동은 이전에 이야기한 적 없는 두려움, 죄책감,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을 낮은 면담자에게 털어놓아야 한다(Brown, 2011). 이 때 그림 그리기는 아동에게 안정감을 주는 스트레스 대처 전략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12세의 피해 여아가 그림 그리기 활동 이후 “그 사람이 저에게 한 모든 일을 그림으로 그린 후 저는 이제 괜찮다고 느껴졌어요. 이제 모든 것에 대해 물어보셔도 돼요. 이건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에요”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Katz & Hamama, 2013). 그림 그리기 활동 전에 아동은 스트레스 대처 전략을 사용하기에 무기력한 위치에 있지만 그림 그리기 활동 이후에는 자신의 부정적 상태를 즉시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통제를 지닌 위치로 전환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Katz & Hamama, 2013). 피해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사건의 정황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타인, 특히 낮은 성인에게 자신의 생각을 명료하게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또한 실제 (성)폭행 피해로 경험된 부정적 정서로 인해 폭로를 꺼려하는 경향이 높을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아동 면담 시 그림 그리기 활동을 통한 아동의 정서적 측면을 보듬어 주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발견한 결과는 아동의 수줍음 특성에 따라 면담자의 지지적 태도나 그림 그리기 활동과 같은 면담의 구성적 측면이 아동의 기억 정확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수줍음의 정도가 낮은 아동과 달리 수줍음의 정도가 높은 아동의 경우 개방형 질문에 대한 자발적 보고에 있어

그림 그리기의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면담자의 지지적 태도는 아동의 수줍음 정도와 무관하게 자발적 보고의 정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국 그림 그리기의 활동이 낯선 환경에서 아동의 부정적 정서를 보듬어 주는 면담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위의 해석을 지지해 주는 결과라 볼 수 있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그림 그리기 활동이 제공되는 경우 수줍음이 높은 아동은 면담의 초점을 면담자로부터 그림 그리기로 옮겨 보다 자유롭고 편안하게 자신의 기억을 탐색할 수 있고 따라서 개방형 질문에 더 많은 정보를 정확하게 보고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혹은 그림 그리기 활동이 제공된 경우 수줍음이 높은 아동은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면담 상황을 더욱 편안하게 지각하고 따라서 개방형 질문에 자발적으로 반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되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개방형 질문에 대한 아동의 자발적 반응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사 면담에서 수줍음이 많은 아동일수록 면담자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 해 줄래/ 그것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 해 줄 수 있겠니/ 그것에 대해 전부 이야기해 주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니/ 그 후엔 어떤 일이 있었니' 등의 질문을 반복적이고 단조롭게 고집하기 보다는 아동에게 그림을 그려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동의 자발적 보고를 증가시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음을 함의한다.

한편 오정보의 경우, 수줍음이 낮은 아동과 달리 수줍음이 높은 아동의 경우 면담자의 지지적 태도에 따른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면담자의 태도에 따른 암시적 질문에 대한 아동의 저항 정도가 아동의 수줍음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아무래도 수줍음이 높은 아동들은 면담자의 암시적 질문에 '네'라는 응답으로 불편하고 낯선 면담 상황을 신속하게 종결하려는 동기가 더 강할 수 있다. 따라서 면담자가 암시적이고 거짓된 정보를 포함한 질문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자신의 기억을 신중하게 검토해 보기 보다는 '네, 그와 같은 일이 있었어요'라는 식의 거짓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수줍음이 높은 아동일수록 면담자가 정서적으로 지지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보통의 경우, 면담자는 아동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실제적 진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암시적 질문을 제공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면담자가 암시적 질문을 최소화하려는 의식적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그 보다 앞서 암시적 질문이 제공되더라도 아동이 잘 저항할 수 있도록 지지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면담을 진행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면담자의 지지적 태도와 그림 그리기 활동이 아동 기억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하였지만 이 두 요인이 독립적으로 아동 기억 향상에 영향을 미쳤기 보다 잠재적으로 혼합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림 그리기가 제공된 집단의 경우 면담자가 아동의 그림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언어적으로 특별히 제공하지는 않았지만 아동이 그린 그림에 대해 모두 말해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아동은 면담자가 아동이 그린 그림에 관심을 보였고 이를 면담자의 따뜻하고 정서적인 태도로 지각했을 수 있다. 연구 결과도 그림 그리기 활동과 면담자의 지지가 모두 제공된 집단의 아동의 자발적 보고 정확성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그림 그리기 활동이 제공되더라도 면

담자의 태도가 지지적이지 않은 경우 면담자의 태도에 대한 아동의 인식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그림 그리기 활동만으로 아동이 면담자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판단하였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속 연구에서는 이 두 요인이 아동 기억의 정확성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하게 분리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본 연구는 면담자의 지지적 태도와 그림 그리기 활동의 여부가 아동의 기억 정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아동의 수줍음 정도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을 몇 가지 제시하자면 연구에 참여한 아동의 연령이 고르게 표집 되지 못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낮은 연령과 높은 연령의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시행하였으나 성인과 달리 아동은 연령에 따른 기억차가 적지 않기 때문에 만 5-7세와 만 8-10세를 각각 하나의 집단으로 보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아마도 연령별로 살펴본다면 면담자의 태도와 그림 그리기 활동과 같은 면담의 구성적 요인이 아동 기억에 미치는 영향이 어린 아동의 경우 더 명확하게 나타났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연구 윤리를 고려하여 아동이 경험하는 부정적 사건으로 자연스럽게 스트레스가 유발되는 치과 진료 상황을 선택하였지만 실제 범죄 사건에서 유발되는 부정적 정서의 강도나 수준과는 비교가 불가능하다. 후속 연구에서는 피해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 개별 특성에 따라 면담의 구성적 특성이 아동의 기억 정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범죄 사건을 경험한 피해 아동의 특성은 사건의 특성만큼이나 다양하기에 아동의

개별 특성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면담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비록 아동의 특성까지 사전에 고려한 면담을 실시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지만 개방형 질문의 사용, 면담자의 지지적 태도의 중요성, 다양한 부가적 도구의 효용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의 수줍음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담자가 보다 지지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기본적으로 구조화된 면담 프로토콜을 따르되 짧은 시간이라도 그림 그리기 활동을 통해 아동의 자발적인 기억 회상을 촉진하는 노력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곽금주, 김연수, 이승진 (2015). 면담의 환경적 특성 및 아동의 의도적 통제 수준이 아동 기억의 정확성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22(1), 167-193.
- 김태경, 이영호 (2010). 아동 진술조사 지침서 (성폭력 피해 아동과의 조사적 면담을 중심으로). 두감람나무.
- 대검찰청. 범죄통계 (2015)
- Brown, D. A. (2011). The use of supplementary techniques in forensic interviews with children. In M. E. Lamb, D. La-Rooy, L. C. Malloy, & C. Katz (Eds.), *Children's Testimonies: A Handbook of Psychological Research and Forensic Practice* (pp. 217-250) (2nd ed.). UK: Wiley.
- Baker-Ward, L., Quinonez, R. B., Milano, M., Lee, S., Langley, H., Brumley, B., & Ornstein, P. A. (2015). Predicting children's recall of a dental procedure: Contributions of stress, preparation and dental history. *Applied*

- Cognitive Psychology*, 29(5), 775-581.
- Bruck, M., Melnyk, L., & Ceci, S. J. (2000). Draw it again Sam: the effect of drawing on children's suggestibility and source monitoring ability.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77(3), 169-196.
- Butler, S., Gross, J., & Hayne, H. (1995). The effect of drawing on memory performance in young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31(4), 597-608.
- Cohen-Liebman, M. S. (1999). Draw and tell: Drawings within the context of child sexual abuse investigations. *The Arts in Psychotherapy*, 26(3), 185-194.
- Cornah, C. E., & Memon, A. (1996). *Improving children's testimony: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In bienni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y-Law Society, Hilton Head, TX.
- Davis, S. L., & Bottoms, B. L. (2002).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children's eyewitness reports: a test of the underlying mechanism. *Law and human behavior*, 26(2), 185-215.
- Davis, L. E., & Thomas, G. V. (2001). Effects of drawing on children's item recall.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78(2), 155-177.
- Drucker, P. M., Greco-Vigorito, C., Moore-Russell, M., Avaltroni, J., & Ryan, E. (1997). *Drawing facilitates recall of traumatic past events in young children of substance abusers*. In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Washington, DC.
- Goodman, G. S., Hirschman, J. E., Hepps, D., & Rudy, L. (1991). Children's memory for stressful events. *Merrill-Palmer Quarterly*, 37(1), 109-157.
- Green, V. (Ed.). (2003). *Emotional Development in Psychoanalysis, Attachment Theory and Neuroscience: Creating Connections*. New York: Brunner-Routledge.
- Greenstock, J., & Pipe, M. E. (1997). Are two heads better than one? Peer support and children's eyewitness reports.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11(6), 461-483.
- Gross, J., & Hayne, H. (1998). Drawing facilitates children's verbal reports of emotionally laden event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Applied*, 4(2), 163-179.
- Guttmann, J., & Regev, D. (2004). The phenomenological approach to art therapy. *Journal of Contemporary Psychotherapy*, 34(2), 153-162.
- Hamama, L., & Ronen, T. (2009). Drawing as a self-report measurement. *Child and Family Social Work*, 14(1), 90-102.
- Hershkowitz, I. (2011). Rapport building in investigative interviews of children. In M. E. Lamb, D. J. La Rooy, L. C. Malloy, & C. Katz(Eds). *Children's testimony: A handbook of psychological research and forensic practice* (pp.109-128). Chichester, UK: John Wiley & Sons, Ltd.
- Katz, C. (2013). Stand by me: The effect of emotional support in investigative interviews with children.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46(4), 1-14.
- Katz, C., Barnett, Z., & Hershkowitz, I. (2014). The effect of drawing on children's experiences of investigations following alleged child abuse. *Child abuse & neglect*, 38(5), 858-867.

- Katz, C., & Hamama, L. (2013). "Draw me everything that happened to you": Exploring children's drawings of sexual abuse.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5*(5), 877-882.
- Katz, C., & Hershkowitz, I. (2010). The effect of drawing on the richness of accounts provided by alleged victims of child sexual abuse. *Child Maltreatment, 15*(2), 171-179.
- Lamb, M. E., Hershkowitz, I., Orbach, Y., & Esplin, P. W. (2008). *Tell Me What Happened: Structured Investigative Interviews of child victims and Witness*. West Sussex, England: John Wiley & Sons Ltd.
- Lamb, M. E., Hershkowitz, I., Sternberg, K. J., Boat, B., & Everson, M. D. (1996). Investigative interviews of alleged sexual abuse victims with and without anatomical dolls. *Child Abuse & Neglect, 20*(12), 1251-1259.
- Lamb, M. E., La Rooy, D., Malloy, L. C., & Katz, C. (2011). *Children's Testimony: A Handbook of Psychological Research and Forensic Practice* (2nd ed.). Wiley Publications.
- Malchiodi, C. A. (1998). *Understanding Children's Drawings*. New York: Guilford Press.
- Malloy, L. C., Lamb, M. E., & Katz, C. (2011). *Children and the law: Examples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in action*. In M. E. Lamb, & M. H. Bornstein (Eds.), *Soci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pp. 435-476). New York, NY : Psychology Press.
- Marsac, M. L. (2008). *Relationships among Psychological Functioning, Dental Anxiety, Pain Perception, and Coping in Children and Adolesc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Toledo.
- Moschini, L. B. (2005). *Drawing the Line: Art Therapy with the Difficult Client*. New Jersey: John Wiley.
- Otgaar, H., Howe, M. L., Brackmann, N., & Smeets, T. (2016). The malleability of developmental trends in neutral and negative memory illusion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45*(1), 31-55.
- Pipe, M. E., Lamb, M. E., Orbach, Y., & Cederborg, A. C. (2007). *Child sexual abuse: Disclosure, delay, and denial*. Mahwah, NJ: Lawrence Erlbaum.
- Poole, D. A., & Dickinson, J. J. (2013). Investigative interviews of children. In R. E. Holiday, & T. A. Marche(Eds.), *Child forensic psychology: Victim and eyewitness memory* (pp. 157-178). NY: Palgrave Macmillan.
- Putnam, S. P., & Rothbart, M. K. (2006). Development of short and very short forms of the Children's Behavior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87*(1), 102-112.
- Roberts, J., & Taylor, C. (1993). Sexually abused children and young people speak out. In L. Waterhouse (Ed.), *Child abuse and child abusers: Protection and prevention*. London, England: Jessica Kingsley.
- Salmon, K. (2001). Remembering and reporting by children: The influence of cues and props. *Clinical Psychology Review, 21*(2), 267-300.
- Salmon, K., Bidrose, S., & Pipe, M. E. (1995). Providing props to facilitate children's event reports: a comparison of toys and real items.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60*(1), 174-194.
- Salmon, K., Roncolato, W., & Gleitzman, M.

- (2003). Children's reports of emotionally laden events: Adapting the interview to the child.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17*(1), 65-79.
- Silver, R. (2001). *Arts as language: Access to thoughts and feelings through stimulus drawings*. New York, NY: Brunner-Routledge.
- Strange, D., Garry, M., & Sutherland, R. (2003). Drawing out children's false memories.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17*(5), 607-619.
- Wattam, C. (1992). *Making a case in child protection*. Harlow, England: Longman.
- Weinle, C. A. (2002). *Facilitating children's emotional expression through drawing: Focus on children of divorce*. Unpublished dissertation. Toledo, OH: The University of Toledo.
- Wesson, M., & Salmon, K. (2001). Drawing and showing: Helping children to report emotionally laden events.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15*(3), 301-320.
- Westcott, H. L., & Davies, G. M. (1996). Sexually abused children's and young people's perspectives on investigative interviews.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26*(4), 451-474.
- Yuille, J. C., & Cutshall, J. L. (1986). A case study of eyewitness memory of a crim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1*(2), 291-301.
- Yuille, J. C., & Cutshall, J. L. (1989). Analysis of the statements of victims, witnesses and suspects. In J. C. Yuille (Ed.), *Credibility assessment* (pp. 175-191). Netherlands: Springer.
- 1 차원고접수 : 2017. 01. 20.
심사통과접수 : 2017. 03. 22.
최종원고접수 : 2017. 03. 25.

**An Exploration of the Effects of Interviewer's Attitude
and Drawing Activities on the Accuracy of Children's Memory:
With a focus on Children's Temperamental Trait**

Lee, Seungjin

Sang-Huh College
Konkuk University

Kim, Hoyoung

Forensic Science Division 1
Supreme Prosecutor's Offic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mpirically explore the effects of structural features of interviews, such as interviewer's attitude and drawing activities on the accuracy of children's recall. To this end, the accuracy of memory recalls by 100 children of age 5-10 who had pediatric dentistry appointments was assessed by controlling their age, interviewer's attitude (supportive vs. unsupportive), and whether or not they were given a chance to draw their experiences during the interview. The findings indicated that interviewer's supportive attitude and drawing activity had positive effects on children's recall. More specifically, children assigned to a supportive interviewer group showed higher accuracy and less error than children assigned to an unsupportive interviewer group. Furthermore, children who were given the chance of drawing provided more accurate free recall than those who were only allowed oral reporting. These results were especially heightened among children who exhibited a higher tendency of shyness. In addition, compared to older children, younger children were found to be relatively more influenced by the interviewer's attitude and drawing activity.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discussed the significance of interviewer's supportive communication as well as the usefulness of drawing as one of the supplementary tools during investigative interviews.

Key words : child memory, interviewer's attitude, drawing activity, child temperament, supplementary interview technique

부 록

● 기억 면담 질문

· 개방형

방금 받은 치과 진료에 대해 기억나는 것을 모두 말해줄 수 있을까?

· 반개방형 질문

(질문의 답에 해당되는 정보를 의료진이 아동의 연령을 고려한 용어로 진료 시에 반복해서 언급해 줌)

- 의사 선생님이 얼굴에 쓰고 계셨던 것은 무엇인가요? (마스크)
- 의사 선생님이 눈에 쓰고 계셨던 것은 무엇인가요? (안경)
- 의사 선생님이 손에 끼고 있던 장갑은 무슨 색이었나요? (흰색)
- 의사 선생님이 00이의 목에 무엇을 둘러주셨나요? (녹색수건)
- 의사 선생님이 00이 손에 쥐어 준 것은 무엇이었나요? (거울)
- 00이가 앉은 의자는 어떻게 움직였나요? (위아래)
- 간호사 선생님은 입을 옷은 무엇이었나요? (청색멜방바지)
- 의사 선생님이 00이의 입을 벌려 두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하셨어요? (턱배개)
- 진료 초반에 의사 선생님이 00 치아에 발랐었던 것은 무슨 크림이예요? (핫크림)
- 의사 선생님이 00이의 치아에 바른 크림을 마르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하셨어요? (파란레이저/파란광선드라이)
- 의사 선생님이 00이의 치아에 나쁜 벌레들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발라주셨어요? (매니큐어)
- 의사 선생님이 친구에게 씹어보라고 주신 고무 찰흙은 무슨 색이었나요? (분홍/핑크)
- 의사 선생님이 벌레를 잡은 후 깨끗이 00이의 입안을 청소해 주기 위해 무엇을 사용하였나요? (물총/분수기)
- 의사 선생님이 00이의 입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나서 무엇으로 치아들을 닦아 주셨나요? (흰색솜)
- 진료 후에 의사 선생님이 00에게 물로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셨어요? (치카치카)

· 선택형 질문 중 암시적 질문(경험하지 않은 일에 대한 질문)

- 의사 선생님이 00의 키와 몸무게를 측정했어요?
- 의사 선생님이 00이의 등과 배를 검진하기 위해서 청진기를 사용했어요?
- 의사 선생님은 긴 머리를 풀고 계셨나요?
- 의사 선생님이 00이가 열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 이마에 손을 대셨어요?

- 의사 선생님이 00이의 발가락에 반창고를 붙여 주셨어요?
- 의사 선생님이 00이의 머리카락을 매만져 주셨어요?
- 의사 선생님이 00이에게 먹는 약을 건네 주셨어요?
- 의사 선생님이 진료 후 00이에게 칭찬을 하면서 사탕을 선물로 주셨어요?
- 의사 선생님이 00이가 눈이 잘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00이의 눈도 살펴보셨어요?
- 의사 선생님이 00이의 귀가 잘 들리는지 확인하기 위해 00이의 귀도 확인하셨어요?

● 면담자 태도 조작을 확인하는 질문

1. 치과 진료에 대해서 선생님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해 주었는데, 선생님한테 이야기 하는 동안 기분이 어땠어?
(1. 매우 불편했다. 3. 그저 그랬다. 5 매우 편했다)
2. 00이가 선생님 질문에 응할 때 선생님이 미소를 많이 보여주셨어?
(1. 전혀 아니다. 3. 보통. 5 매우 많이 보여주셨다)
3. 00이가 선생님 질문에 응할 때 선생님이 고개를 많이 끄덕여 주셨어?
(1. 전혀 아니다. 3. 보통. 5 매우 많이 보여주셨다)